2025. 6. 30

# 금융 Weekly Insight

## 일평균거래대금 40조 돌파하며 증권업종 강세 지속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5년 6월 마지막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박준규 Analyst jun.kyu.park@samsung.com
박세웅 Research Associate sewoong.park@samsung.com


### 금융 Overview

- 은행 - 은행주는 3.4% w-w 상승, KOSPI 상승률 1.1% w-w를 상회. 주주환원 강화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주효한 가운데, 수도권 중심 부동산 경기 회복 및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가 은행 이자이익 및 충당금 부담 완화 기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로 인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 가능. 다만, 7월 발표될 2Q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KB금융의 연간 주주환원율이 50%에 근접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업종 전반의 Valuation Re-rating 및 종목간 Gap 메우기 관점에서의 접근이 보다 유효 판단.
- 증권 - 업종 지수 +7.0% w-w 상승하며 코스피를 아웃퍼폼. 특히, 미래에셋증권(+9.0%)의 주가가 아웃퍼폼하였는데, 일평균 거래대금 40조원 돌파 및 2분기 실적 개선 등 기존의 긍정적인 투자포인트와 더불어, 그룹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출원 등 미래 신사업 가능성까지 하이라이트 된 점에 기인. 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뉴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지속.
- 보험 - 업종 지수 +1.4% w-w 상승하며 코스피와 유사한 상승률 기록. 금리 상승 및 K-ICS비율 개선 등 긍정적 기대감에 상승하던 보험주는 점차 관심이 2분기 실적으로 옮겨가며 손해율 상승 등 실적 둔화 우려에 주가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

###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 Sector | News | Implication |
|---|---|---|
| 은행 | **(6/22) 은행이 소상공인 폐업, 재기까지 돕는 이유**<br>- 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은 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이 신용도 하락 없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고용, 복지 연계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재기지원 통합시스템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br>- 현재도 은행에 확약서 제출 시 최대 30년, 연 3% 수준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여기에 지방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7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신규 포함.<br>- 또한, 채무조정, 취업지원,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이후에 대한 자영업자의 우려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 | **정부 지원의 방향성 - 재기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 선별적 지원:** 이와 같은 정부안은 소위 폐업 이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환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의 우려를 줄여주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재기가 가능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한다는 방향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 |
| | **(6/24) 소비자심리 4년만에 가장 낙관적**<br>- 한국은행 발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6.9pm-m 상승하였고, '21년 6월 이후 최고치 기록.<br>-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안 편성 및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 | **경제는 심리 - 심리지수 개선 긍정적:** 경제는 심리라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은 금융업 실적에 긍정적 기여 가능. 특히, 이러한 심리가 경제 활동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은행은 자영업자 중심 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br>**다만,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 대표적 이슈는 관세:**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 또한 상존. 대표적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관세 이슈를 들 수 있을 것. 즉, 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보다는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관점에서의 접근이 보다 유효 판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 Sector | News | Implication |
|---|---|---|
| 은행 | **(6/25) 자영업 위기 대출 연체율 12년래 최고. 다만, 은행-비은행 양극화**<br>-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Q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13년 2분기 13.54% 이후 최고 수준. 참고로,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 차주를 의미.<br>- 다만, 양극화 현상도 뚜렷. 자영업자 대출 부실은 비은행권 중심 확산세를 보였는데,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3%를 기록한 반면, 비은행권은 3.92%로 3Q15 이후 최고치.<br>- 해당 보도는 자금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신용도 하락으로 비은행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 | **자영업자 재무 상황 개선이 관건:**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비은행권 중심 연체율이 높은 상황. 즉, 자영업자 재무 상환 개선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 완화는 물론, 경제 유동성이 보다 원활히 돌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br>**시중금리 하락은 긍정적 요인:**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이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 약화를 꼽을 수 있음. 즉, 금리 인하가 향후 이뤄질 경우, 이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br>**비은행권에 대한 건전성 우려는 상존:** 다만, 해당 언론 보도가 추정한 것과 같이 자금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비은행권으로 이동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건전성 격차를 유발한 것이라면, 비은행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 반대로, 은행업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더불어 은행들의 자영업자 대출은 상당 부분 담보, 보증서 등을 통해 신용이 보강된 점도 고려 필요." |
| | **(6/26) 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우후죽순 출원**<br>-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앞서 시장 선점을 위한 종목코드 상표권 출원이 쏟아지고 있음. KB가 최근 17개 상표를 2개 상품분류로 나눠 32건을 출원하였고, 하나은행도 16개 총 48건을 신청. 참고로, 카카오뱅크 및 미래에셋도 각각 4개 12건, 2개 8건을 출원 신청. " | **현재까지 은행들은 개별 대응보다는 컨소시엄 구성에 무게:** 현재 8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NH, 기업, 수협, 케이, iM)은 컨소시엄을 구성, 합작 법인을 설립,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모델을 구상중. 즉, 현재 은행별 상표권 출원은 컨소시엄 중심의 출범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판단.<br>**새로운 시장 vs 수익성:**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될 경우, 새로운 시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가 최근 관련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 다만, 해당 시장의 구도는 물론, 시장 내의 참여자들이 이를 통해 어떠한,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가 향후 관건 판단." |
| | **(6/26) 4대 금융지주 올 2분기 순이익 5조원 안팎**<br>- Fn가이드에 따르면 4대 지주 2분기 순익 전망치는 총 4.9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은행별로는 KB 1.58조원 (-7.5% y-y), 신한 1.42조원 (-2.4%), 우리 0.88조원 (-2.4%), 하나 1.08조원 (+3.1%).<br>- 2분기 이익의 전년동기대비 감소는 작년 일회성 요인에 따른 기저효과. 일례로, 2Q 중 은행들은 ELS관련 충당금 환입을 인식 (KB 1,200억원 / 신한 910억원 / 하나 650억원 등).<br>- 즉,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은행들의 실적 개선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견조한 실적 개선 기대:** 올해 상반기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확대되는 구간이었음. 하지만, 이러한 환경 하에서도 은행들은 견조한 실적 개선을 기대 (일회성 제외 기준). 더 나아가, 최근 환율 하락 등을 감안, 은행들의 자본비율도 초과 개선을 기대.<br>**'25년 실적 - 은행들의 견조한 실적 창출 역량 확인 기대:** 결국 이와 같은 연이은 실적 호조는 은행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 창출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 | **(6/27) 4월 원화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br>- 국내 은행의 4월 원화대출 연체율은 0.57%로 4bp m-m, 9bp y-y 상승. 신규연체 발행액은 2.9조원으로 전월 3조원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연체채권 정리가 감소한 것에 기인.<br>-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6bp m-m 상승 (대기업 0.13%, +2bp / 중소기업 0.83%, +7bp)하였고, 가계대출은 0.43%로 2bp 상승 (주담대 +1bp vs 주담대 외 신용대 +7bp). | **신규 연체 발행 감소에 초점 필요:** 통상적으로 분기 초는 이전 분기 말 대규모 매상각 효과로 인해 상승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연체율 상승 자체보다는 신규 연체 발행 감소에 초점이 필요. 이는 자산건전성 악화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br>**향후 관건은 6~7월:** 결국 향후 관건은 정부 정책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드러나는 6~7월의 연체율이 될 전망. 물론, 6월은 반기 말 매상각으로 인해 지표는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7월 연체율의 상승 폭이 관건이 될 전망.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 |
|---|---|---|
| **증권** | **(6/23) 대체거래소 및 외인 투자자 효과… 증시 거래대금 40조원 육박**<br>- 외국인 투자자 귀환과 대체거래소 출범 효과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40조원에 육박. 이는 지난 '21년 1월 이후 처음. 당시 코스피가 3,100pt를 상회했던 시점에 외국인 비중은 13%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8% 수준.<br>- 금융위 중심으로 주식 거래시간을 현재 6.5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 현실화될 경우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 존재.<br>- 한편, 대체거래소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5%룰'에 대한 경계심도 고조.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은 동기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길 수 없기 때문. | **브로커리지 모멘텀은 점차 확대되는 중:**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 거래대금 증가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 지난주 일중 거래대금은 40조원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소위 동학개미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21년 상반기 Peak 수준에 육박. 브로커리지 이익의 경우, 증권사 입장에서 자본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Capital Light 비즈니스인 만큼, 해당 비중의 구조적 확대가 이어진다면, 증권사 최근 주가 상승 또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 | **(6/24)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급 감소에 따라 가격 반등 신호**<br>-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이 침체기를 지나 회복 초기에 돌입했다는 분석. 미국 CRE 가격지수는 '22년 3월 155에서 '23년 11월 121.5까지 하락한 뒤 현재 127.8로 소폭 반등<br>- CRE의 공급 감소와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반등 가능성에 무게. 현재 미국은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에 따라 건설비용 급등하면서 신규 개발 위축된 반면, 기업 재택근무 축소로 오피스 수요는 반등 추세.<br>-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도 미국 CRE 투자매력을 높이는 중. 건설비용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기존 건물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 | **Capital intensive 영역에서의 부담 또한 경감:** 브로커리지 이익 증가와 더불어 증권사들의 Risk 측면에서의 부담도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특히, 일부 대형증권사의 경우 '22년말 이후 해외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보유 자산 및 중개 자산 평가손실에 따른 충당비용을 대규모로 인식하였는데, 최근 해당 시장 가치 하락세 안정화에 따른 증권사 비용 부담 또한 절감되고 있음. |
| | **(6/27)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IB, '12시간 거래' 넥스트레이드 참여**<br>-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IB가 10/27 예정된 넥스트레이드(NXT) '2차 오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밝힘.<br>- 이는 NXT가 1) 정규시장 외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접근성이 좋고, 2) KRX 대비 20~40% 낮은 매매 체결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용 측면 유리하기 때문.<br>- 최근 NXT의 시장 점유율 증가가 외국계 IB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판단. 또한 NXT의 유동성이 높다 보니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NXT 거래 요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 **Flows get flows, 유동성이 있는 곳에 유동성이 모인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초기, 개인투자자 중심 시장 형성에 따른 기관투자자 부재가 거래소 성장의 주요 한계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다만, 오히려 최근 국내증시 강세 및 개인투자자들이 증시 움직임에 핵심 변수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유동성을 찾아 대체거래소로 들어오려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기관거래량 증가 및 향후 ETF 거래 가능 등 NXT 추가 성장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
| **보험** | **(6/23)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국내 보험사 비용 상승 압력**<br>-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부과로 인한 부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국내 보험업종 전반의 비용 상승 압력을 유발.<br>- 손해보험사의 경우, 관세 영향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산업 부문에 밀접하게 노출. 자동차보험은 수리비 증가, 건설 및 화재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험금 규모 확대 영향.<br>- 생명보험사는 복합적 리스크 노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시 신규 계약 유입이 정체되면서 보장성/저축성 상품의 해지율이 증가하고, 확정금리형 상품의 역마진이 확대되면서 K-ICS비율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 | **보험원가 상승에 대응한 가격 조정이 관건이나, 이는 시차를 두고 가능:**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1) 손해율 상승 파악, 2) 금리 관찰 이후 예정이율 조정, 3) 당국과의 협의 등 다양한 단계가 존재하여, 원가상승 대비 보험료 조정에 시차 존재. 이에 따라 초기 원가 상승시 손해율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단기적으로 실적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 |
|---|---|---|
| 보험 | **(6/24) 장마철 앞두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83%... 2분기 적자 위기 고조**<br>- 국내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3%에 도달. 이미 1분기 일부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2분기 실적에도 위기감 고조.<br>- 장마철에는 통상 타 계절 대비 손해율이 크게 상승.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손해율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절성 영향에 따라 손해율 추가 상승 가능성 농후.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구조적 악화 트랜드 지속:** 국내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지속적인 요율 인하에 따른 구조적 손해율 상승 트랜드가 지속되고 있음. 물론, 2~3분기 계절적 영향에 따른 손해액 증가는 예견된 상황이나, 방향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이 투자심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
| | **(6/25) 실손 선택형 특약 연내 출시... 금융당국, 과잉비급여 중심 검토**<br>- 금융당국은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추진. 이는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제도.<br>-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질환을 선택해서 보장 제외하는 방안보다는, 비급여 치료를 제외하는 방식이 더욱 유력한 상황.<br>-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일부 이용자에 따라 과잉 의료 등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선택형 특약 도입 및 안착 시 보험료 인하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상품 개정이 선택형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 확인 필요:** 비급여 항목 제외 및 이에 따른 보험료 절감이라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차원에서는 일부 긍정적일 수 있음. 다만, 의료 과다이용자의 경우 해당 특약을 여전히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소 이용자의 보험료만 인하되는 반면, 여전히 청구금액은 높게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존재. |
| 결제 | **(6/24) 소비자심리지수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br>- 한국은행이 6월 소비자심리지수를 108.7로 발표<br>- 이는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1년 6월 이후 최대치<br>- 이는 신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 및 추경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기인 | **소비 개선은 결제사 실적 개선으로:** 소비심리 개선은 결제사들의 거래대금 증가로 연결. 이에 결제사들의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개선될 전망. 연간으로는 1분기 저점을 지나 하반기 견조한 소비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br>**관건은 수익성 개선 여부:** 다만, 실적 관점에서 최대 관건은 수익성의 구조적 개선 여부 확인이 될 전망. 결제사들의 수익성은 코로나 이후 대형 가맹점으로 거래가 집중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 |
| 핀테크 | **(6/26)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스테이블코인 경고**<br>- 한국은행은 25일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 금융안정과 경제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 특히, 코인런, 금융사고, 자본유출,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등을 우려. | **스테이블코인 시장 준비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고민:** 결국 향후 관건은 한국은행이 제기한 것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판단. 즉,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서와 같이 코인 발행사에 매월 준비자산 보유 사항 등에 대한 회계법인 검토 보고서 제출을 철저히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br>**잠재적 Winner에 대한 고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 Winner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필요. 실제로,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USDT와 USDC가 압도적 지위를 보유. 참고로, 암호화폐 시장도 몇 가지 핵심 코인이 상당 부분의 시총을 형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도 Visa와 Master Card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 즉,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시장인 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내 빠른 Consolidation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종목 선정이 보다 중요한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고려 필요. |

| Company | News | Implication |
|---|---|---|
| 신한지주 | **(6/25) 사모펀드의 신한지주 보유 지분 블록딜**<br>- PEF 어피니티는 신한지주 지분 1.94% (974만주)를 주당 59,630원에 시간외 대량 매매로 처분. 참고로, 이는 24일 종가대비 2.25% 할인된 가격이며, 이를 통해 어피니티는 5,8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회수. | **물량부담 완화 관점 접근 필요:** 지난 해 신한지주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주가 상승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PEF 보유 지분에 따른 물량부담 우려. 하지만, 금번 어피니티 지분 매각까지 이뤄지며 상당 부분의 물량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br>**다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실적, 그리고 주주환원:** 다만, 신한지주의 Re-rating 혹은 KB금융과의 Gap 축소를 위한 최대 관건은 실적, 그리고 이에 기반한 주주환원 강화. 일례로, 동사는 작년까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 개선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신한증권과 자산신탁 등의 일회성 손실 혹은 추가충당금 요인 등에 기인. 즉, 올해 관건은 경상 이익 창출 여력의 제고 및 이에 따른 당초 계획대비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 강화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 |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 일자 | 국내 | 해외 |
|---|---|---|
| 2025-06-30 (월) | 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 미국 6월 시카고 PMI |
| |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 미국 6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
| | 5월 산업활동동향 |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중앙은행 포럼 |
| | KDI 북한경제리뷰 |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연설 |
| | 6월 관광통계 | 독일 5월 수출입물가지수 |
| | | 독일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
| | | 독일 5월 소매판매 |
| | | 영국 1분기 경상수지 |
| | | 영국 5월 협의통화 및 준비잔고 |
| | | 일본 5월 산업생산 (예비치) |
| | | 중국 6월 제조업/비제조업 PMI |
| 2025-07-01 (화) | 국무회의 | 미국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 |
| |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 정기변경 |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
| | 5월 온라인쇼핑동향 | 미국 5월 구인 및 이직(JOLTs) 보고서 |
| | | 미국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
| | | 미국 5월 건설지출 |
| | |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
| | | 유로존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
| | | 독일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
| | | 독일 6월 실업률 |
| | | 영국 6월 주택가격지수 |
| | | 영국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
| | | 일본 2분기 단칸 대형제조업체 업황판단지수 |
| | | 일본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
| | |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
| | | 홍콩 증시 휴장 |
| 2025-07-02 (수) | 6월 소비자물가동향 | 미국 6월 ADP취업자 변동 |
| | |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
| | | 미국 주간 원유재고 |
| | | 유로존 5월 실업률 |
| 2025-07-03 (목) | 6월 외환보유액 | 미국 6월 고용동향보고서 |
| |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미국 6월 ISM 비제조업지수 |
| | | 미국 증시 조기 폐장 |
| |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 | | 미국 6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
| | | 미국 5월 공장주문 |
| | |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
| | |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
| | | 유로존 6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
| | | 독일 6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
| | | 영국 6월 CIPS/S&P글로벌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
| | | 일본 6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
| | | 중국 6월 차이신 종합/서비스업 PMI 확정치 |
| 2025-07-04 (금) | | 미국 증시 휴장 |
| | | 유로존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 |
| | | 독일 5월 공장수주 |
| | | 일본 5월 가계지출 |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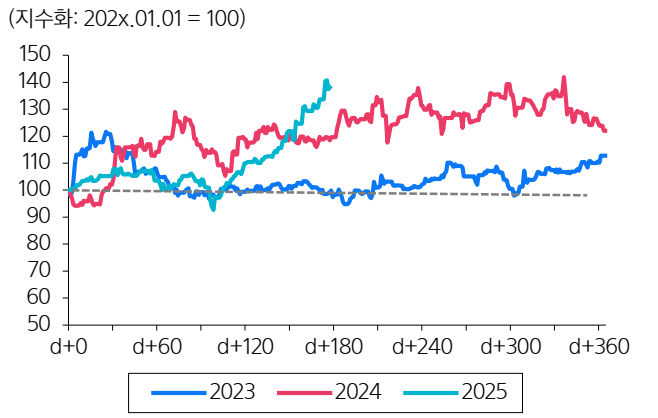
## 1.3 주가 Performance

| 업종 | 종목 | 시가총액 | 주가 | 2025E | | | | | 주가 Performance (%) | | | |
|---|---|---|---|---|---|---|---|---|---|---|---|---|
| | | | | 주주환원율 | PBR | ROE | PER | EPS Growth | | | | |
| | | (조원) | (원) | (%) | (배) | (%) | (배) | (%) | 1W | 1M | 1Y | YTD |
| 코스피 | | 2,436.6 | 3,055.9 | | | | | | 1.1% | 14.4% | 9.8% | 27.4% |
| KRX은행 | | 153.1 | 1,152.0 | | | | | | 3.4% | 16.8% | 42.4% | 38.1% |
| KRX증권 | | 44.8 | 1,408.0 | | | | | | 7.0% | 40.1% | 99.2% | 91.0% |
| KRX보험 | | 64.6 | 2,350.7 | | | | | | 1.4% | 18.5% | 14.8% | 23.9% |
| 결제 지수* | | 1.166 | n/a | | | | | | (6.2%) | 27.4% | 6.7% | 30.2% |
| 은행 | KB금융 | 42.2 | 110,600 | 48.9 | 0.7 | 10.5 | 7.0 | 15.7 | 3.8% | 9.5% | 40.9% | 33.4% |
| | 신한지주 | 30.0 | 60,500 | 42.4 | 0.6 | 10.0 | 5.8 | 18.2 | 2.0% | 6.9% | 28.3% | 27.0% |
| | 하나금융지주 | 24.0 | 84,200 | 41.9 | 0.6 | 10.3 | 5.6 | 14.5 | 5.3% | 20.5% | 39.4% | 48.2% |
| | 우리금융지주 | 16.7 | 22,500 | 35.3 | 0.5 | 9.9 | 5.4 | -0.5 | 5.4% | 22.7% | 55.7% | 46.4% |
| | 기업은행 | 14.6 | 18,300 | 32.0 | 0.5 | 9.8 | 5.3 | 10.2 | 5.8% | 18.4% | 33.5% | 27.7% |
| | BNK금융지주 | 4.0 | 12,480 | 38.4 | 0.4 | 7.8 | 5.0 | 8.8 | 5.9% | 17.5% | 50.5% | 20.7% |
| | iM금융지주 | 4.0 | 20,600 | 34.8 | 0.4 | 8.9 | 4.5 | 118.1 | (2.4%) | 12.4% | 44.1% | 26.5% |
| | JB금융지주 | 2.1 | 12,550 | 44.9 | 0.7 | 13.0 | 5.7 | 3.1 | 6.5% | 17.4% | 60.5% | 53.4% |
| | 카카오뱅크 | 15.0 | 31,450 | 45.0 | 2.2 | 7.9 | 28.2 | 20.9 | (1.9%) | 32.7% | 55.3% | 49.4% |
| 증권 | 미래에셋증권 | 12.2 | 21,350 | 54.6 | 1.0 | 7.7 | 16.1 | 1.2 | 9.3% | 58.9% | 200.3% | 165.9% |
| | NH투자증권 | 6.5 | 19,920 | 54.0 | 0.8 | 9.0 | 8.8 | 6.2 | 3.9% | 22.7% | 59.6% | 42.8% |
| | 한국금융지주 | 7.8 | 140,400 | 20.8 | 0.7 | 9.9 | 7.9 | -12.9 | 6.4% | 41.4% | 108.6% | 96.9% |
| | 키움증권 | 5.7 | 228,500 | 33.8 | 0.9 | 13.2 | 7.6 | 4.1 | 7.0% | 52.2% | 87.9% | 96.6% |
| 보험 | 메리츠금융지주 | 20.2 | 112,200 | 53.7 | 1.7 | 22.3 | 8.7 | 1.2 | 5.5% | 1.8% | 47.8% | 7.9% |
| | 삼성화재 | 20.0 | 435,000 | 41.0 | 1.2 | 12.7 | 9.7 | 5.1 | 1.5% | 11.1% | 15.4% | 21.3% |
| | 삼성생명 | 25.3 | 126,300 | 42.4 | 0.6 | 7.6 | 7.9 | 9.9 | (0.7%) | 30.9% | 46.0% | 33.2% |
| | DB손해보험 | 8.7 | 122,300 | 25.5 | 1.0 | 20.5 | 4.7 | -4.3 | 1.7% | 23.2% | 10.9% | 19.0% |
| | 한화생명 | 2.9 | 3,305 | 11.3 | 0.3 | 6.3 | 4.3 | -8.1 | 1.7% | 15.0% | 12.4% | 34.3% |
| | 현대해상 | 2.4 | 26,650 | 0.0 | 0.5 | 17.7 | 2.7 | -15.6 | 3.7% | 10.6% | (21.2%) | 7.9% |
| 결제 | 카카오페이 | 11.3 | 84,200 | n/a | n/a | 2.8 | 221.7 | 흑전 | 5.8% | 116.5% | 219.5% | 220.8% |
| | NHN KCP | 0.4 | 11,150 | n/a | n/a | 17.4 | 9.0 | 10.0 | (5.8%) | 47.5% | 21.2% | 57.0% |
| | KG이니시스 | 0.3 | 10,820 | n/a | n/a | 8.7 | 4.5 | 64.3 | (7.4%) | 23.2% | (1.2%) | 22.4% |
| | KG모빌리언스 | 0.2 | 5,400 | n/a | n/a | 10.0 | 4.7 | 4.0 | (6.6%) | 24.7% | 7.1% | 13.8% |
| | 나이스정보통신 | 0.2 | 21,450 | n/a | n/a | 8.6 | 6.8 | 218.5 | (5.1%) | 4.9% | (3.2%) | 19.6% |

참고: 6/27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 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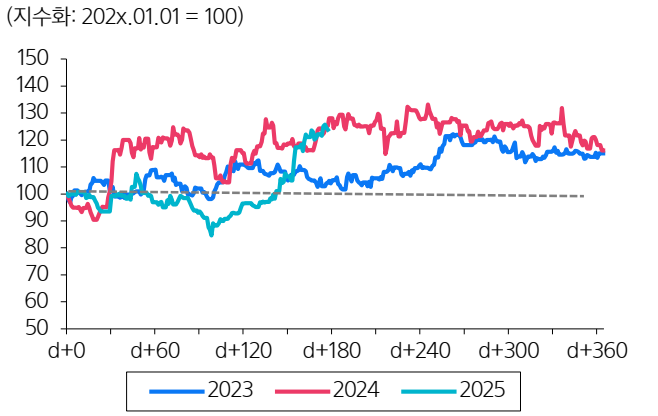
##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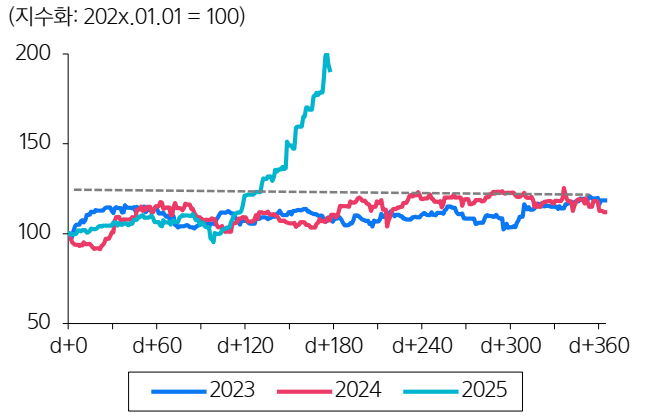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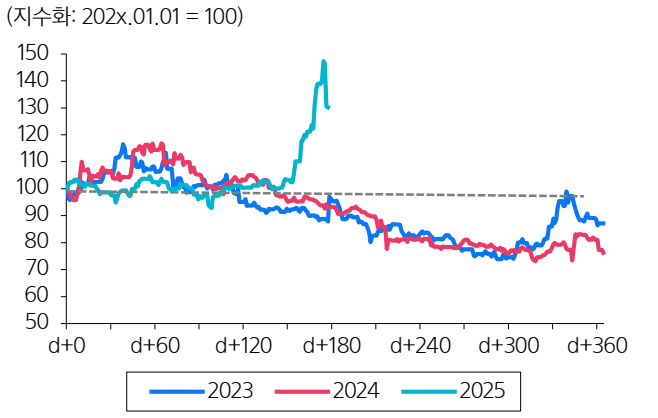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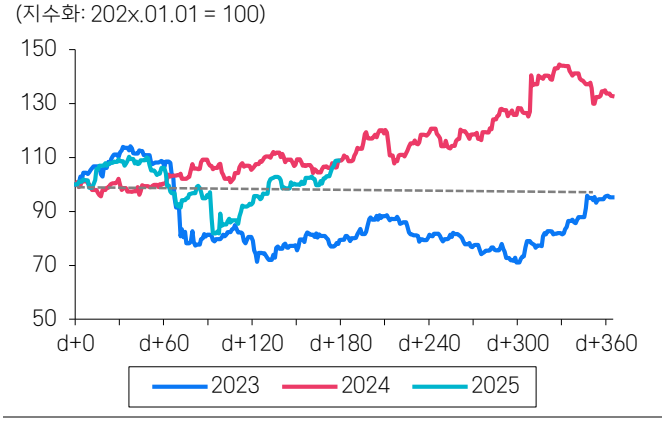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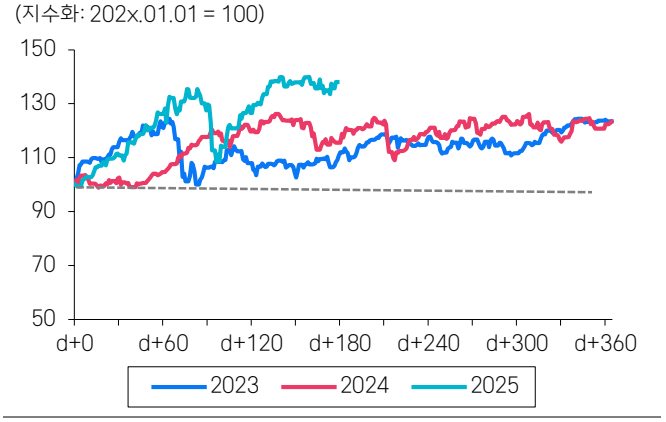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 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1.5 해외 Peer 점검

| Sector | 지역 | 종목 | 시가총액 (USDb) | 25E Valuation | | | | | 주가 Performance | | | |
|---|---|---|---|---|---|---|---|---|---|---|---|---|
| | | | | 주주환원율 (%) | PBR (배) | ROE (%) | PER (배) | EPS growth (%) | 1W (%) | 1M (%) | 1Y (%) | YTD (%) |
| 은행 | 미국 | JP Morgan | 797.9 | 84.4 | 2.3 | 15.3 | 15.6 | (6.5) | 3.2 | 8.8 | 48.5 | 19.8 |
| | | Bank of America | 354.9 | 29.3* | 1.2 | 10.0 | 13.0 | 11.5 | 1.8 | 6.8 | 24.3 | 7.2 |
| | | Citigroup | 157.6 | 97.1 | 0.8 | 7.0 | 11.6 | 22.2 | 6.3 | 12.0 | 36.6 | 19.9 |
| | | Wells Fargo | 258.7 | 101.0 | 1.5 | 11.4 | 13.7 | 8.4 | 3.2 | 6.3 | 32.7 | 13.2 |
| | | PNC Financial | 73.5 | 64.7 | 1.4 | 11.5 | 12.3 | 9.4 | 2.8 | 6.9 | 18.8 | (3.7) |
| | 유럽 | Banco Santander | 122.9 | 63.0 | 1.0 | 12.6 | 7.7 | 13.9 | 2.6 | 0.1 | 48.2 | 57.6 |
| | | Unicredit | 103.3 | 96.0 | 1.4 | 15.5 | 8.8 | 2.5 | 2.7 | (0.1) | 62.5 | 46.7 |
| | | BBVA | 88.0 | 59.9 | 1.3 | 16.6 | 7.7 | (3.1) | 1.7 | (1.5) | 23.8 | 37.6 |
| | | ING Group | 69.5 | 123.2 | 1.1 | 11.4 | 10.0 | (6.2) | 5.7 | 0.8 | 28.1 | 24.4 |
| | | Lloyds | 63.1 | 97.7 | 1.1 | 10.3 | 12.2 | 0.0 | 2.3 | (0.8) | 49.6 | 39.9 |
| | | Barclays | 65.9 | 63.4 | 0.7 | 9.3 | 9.2 | 0.0 | 6.2 | 3.4 | 66.0 | 26.3 |
| | 일본 | Mitsubishi UFJ FG | 165.9 | 63.2 | 1.1 | 9.8 | 11.3 | 9.9 | 2.4 | (2.0) | 28.0 | 7.6 |
| | | Sumitomo Mitsui FG | 97.8 | 61.1 | 0.9 | 9.2 | 10.3 | 16.6 | 1.6 | (1.8) | 23.9 | (3.5) |
| | | Mizuho FG | 69.6 | 36.8* | 0.9 | 9.8 | 9.9 | 15.8 | 2.1 | (0.1) | 33.3 | 3.2 |
| | 중국 | China Construction Bank | 273.6 | 30.4* | 0.6 | 9.9 | 6.2 | (1.1) | 2.9 | 14.1 | 60.9 | 23.9 |
| | | China CITIC Bank | 62.6 | 28.6* | 0.6 | 9.3 | 6.4 | (9.1) | (2.4) | 10.4 | 72.6 | 42.1 |
| 보험 | 미국 | Berkshire Hathaway | 1,049.1 | N/A | 1.5 | 6.7 | 24.6 | (52.0) | (0.2) | (3.5) | 19.5 | 7.3 |
| | | AIG | 48.8 | 212.6 | 1.2 | 9.1 | 13.8 | 흑전 | (1.4) | (0.1) | 13.3 | 16.2 |
| | | Travelers Insurance | 59.7 | 56.0 | 1.9 | 14.6 | 14.1 | (12.7) | (1.6) | (4.5) | 23.0 | 9.3 |
| | 유럽 | Allianz | 155.8 | 76.5 | 2.1 | 17.8 | 12.4 | 9.8 | 2.3 | (1.4) | 30.9 | 16.2 |
| | | AXA | 109.1 | 53.7* | 1.8 | 17.1 | 10.0 | 19.9 | 0.6 | 1.1 | 24.1 | 23.0 |
| | | Generalli | 54.9 | 57.3* | 1.5 | 13.8 | 11.0 | 13.5 | 0.9 | (5.8) | 32.6 | 10.7 |
| | 일본 | Tokio Marine | 82.3 | 40.9* | 2.2 | 19.6 | 12.1 | (6.5) | 5.8 | 0.6 | 27.9 | 7.3 |
| | | Daiichi Life Insurance | 28.2 | 45.5* | 1.1 | 11.3 | 10.5 | (9.9) | 2.9 | (2.4) | 26.7 | 4.0 |
| | 중국 | Ping An Insurance | 133.5 | 35.9* | 0.9 | 12.9 | 7.1 | (0.5) | 6.5 | 9.6 | 43.5 | 9.9 |
| | | China Life Insurance | 137.5 | 22* | 0.9 | 14.0 | 6.2 | (18.6) | 1.9 | 18.4 | 87.0 | 28.9 |
| | | PICC P&C Insurance | 44.1 | 37.1* | 1.2 | 13.2 | 9.5 | 13.9 | 2.0 | 4.3 | 54.3 | 27.1 |
| 증권 | 미국 | Goldman Sachs | 219.9 | 101.9 | 1.9 | 13.1 | 15.4 | 10.3 | 6.8 | 15.0 | 64.5 | 20.6 |
| | | Morgan Stanley | 225.7 | 77.1 | 2.3 | 14.2 | 16.3 | 8.3 | 5.0 | 9.9 | 52.0 | 11.9 |
| | | Charles Schwab | 168.1 | 85.0 | 3.5 | 17.3 | 21.8 | 38.2 | 1.8 | 1.9 | 20.1 | 21.6 |
| | | Robinhood | 73.3 | 42.3 | 8.7 | 14.2 | 65.3 | (18.5) | 8.7 | 25.5 | 385.0 | 122.8 |
| 카드 | 미국 | American Express | 222.2 | 68.7 | 7.0 | 33.6 | 20.9 | 8.6 | 5.9 | 7.9 | 33.8 | 6.9 |
| | | Discover | N/A | 48.6 | 2.6 | 19.3 | 13.9 | (18.9) | N/A | N/A | 59.2 | 15.5 |
| 결제 | 미국 | VISA | 691.0 | 22.3* | 17.7 | 55.2 | 32.2 | 11.1 | 1.4 | (4.5) | 26.7 | 10.3 |
| | | MasterCard | 499.7 | 19.5* | 68.2 | 204.5 | 34.9 | 13.6 | 1.5 | (6.0) | 19.1 | 4.5 |
| | | PayPal | 71.6 | 0* | 3.4 | 24.0 | 14.9 | 24.2 | 2.3 | 4.8 | 14.9 | (13.7) |
| | 유럽 | Adyen | 58.2 | 0* | 9.2 | 23.3 | 44.0 | 21.0 | 2.2 | (6.7) | 36.3 | 9.7 |
| 핀테크 | 미국 | Block | 41.0 | 0* | 1.8 | 7.3 | 34.9 | (58.0) | 4.7 | 7.9 | (8.5) | (21.6) |
| | | Upstart | 6.0 | 0* | 7.8 | 14.3 | 509.1 | N/A | 7.4 | 34.5 | 177.8 | 3.0 |
| | | Affirm | 22.0 | 0* | 7.3 | 0.5 | 1,339.8 | N/A | 9.4 | 31.1 | 115.0 | 11.8 |
| | 중국 | LuFax | 2.4 | N/A | 0.1 | (2.7) | 4.5 | 흑전 | 0.0 | 0.0 | (37.4) | 10.9 |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6월 27일 종가 기준
* 현금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cc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